

‘삶을 다채롭게’ 고품격 인문여행 떠나볼까

CULTURE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애플문화전당 ‘ACC 인문강좌’ 11월까지 문화정보원 극장3

문화예술·아시아 주제…건축·미술·연극·영화 등 강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문화예술, 아시아 등을 주제로 한 ‘ACC 인문강좌’를 오는 11월까지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7시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진행한다.

ACC는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건축’을 시작으로 ‘미술’(5월), ‘연극’(6월), ‘아시아 미술’(7월), ‘애니메이션’(8월), ‘영화’(9월), ‘인문’(10월), ‘음악’(11월) 등 총 8개 강의로 ‘ACC 인문강좌’를 알차게 구성했다.

오는 28일에는 조선일보 문화부 허윤희 미술전문기자과 함께 ‘우리의 상상은 예술이 된다’를 주제로 최근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고 있는 미술계의 동향을 살펴보고 다양한 사례와 트렌드를 통해 미술 현장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본다.

6월 25일은 이호재 국민배우와 함께 ‘배우 이호재의 작품, 그 너머 이야기’를 주제로 이호재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통해 연극의 오늘과 내일을 조망한다. 데뷔작인 ‘생쥐와 인간’을 시작으로 ACC에

서 2년간 공연했던 ‘지정’과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공연한 ‘통소소리’까지 무려 70년 동안 배우의 대표작들을 중심으로 작품 그 너머 이야기를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예술인과 협력해 운영한다.

7월 30일에는 2023년 대구미술관 개관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전인건 간송미술관 관장과 함께 ‘간송의 소장품으로 살펴보는 한국미술의 미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NFT(Non-Fungible Token),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고미술, 문화유산 등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접근방식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8월 27일에는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일명 ‘뽀로로 아빠’로 정평이 나있는 1세대 기획자 최정일 (썬아이코닉스 대표)와 함께 한국 애니메이션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애니메이션이 가진 문화적 영향력과 ‘과연 바람직한 콘텐츠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본다. 최 대표는 ‘뽀롱뽀롱 뽀로로’를 비롯해 ‘태극권자문’, ‘치료와 친구들’, ‘꼬마버스 타요’ 등 20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예술, 아시아 등을 주제로 한 ‘ACC 인문강좌’를 오는 11월까지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7시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진행한다. 사진은 ‘2024 ACC 인문강좌’.

여 작품의 기획과 프로듀싱을 진두지휘한 자타공인 콘텐츠 전문가다.

9월 24일에는 감성적인 문제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 영화사에 길이 남는 명작들을 살펴보고, 뛰어난 작품들은 어떤 영감으로 배태되고 완성됐는지 이해해보는 시간으

로 구성했다. 이 평론가는 ‘언제나 영화처럼’이라는 블로그를 통해 대중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10월 29일에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베스트셀러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지대넓얏’(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시리즈의 체사장 작가와 함

께 오는 지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본다. 체작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왜 알면 알수록 채워지지 않을까?’에 대한 이유를 실천의 부재로 봤다. 이에 이번엔 마려한 ‘인문학적으로 사유하고 상상하기’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식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고요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한다.

마지막 강좌는 11월 26일 장일범 음악평론가와 함께한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클래식 음악에 스토리를 더하는 등 해박한 지식과 유쾌한 해설로 장평이 나있는 장 음악평론가와 함께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속 실천하고 있는 ACC는 이번 8개 강좌 모두 동시 수료통계를 실시하며, 광주 MBC 연빛나 아나운서가 진행자로 참여한다. ACC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중계도 이뤄진다.

김상욱 전당장은 “올해 인문강좌는 ACC 개관 10주년 특별기획으로 최고 권위 있는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했다”면서 “대중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강의인 만큼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ACC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 김다영 기자 alsqsl94@gwangnam.co.kr

고난 속에 꽃 피운 ‘민주정신’ 연극무대로

푸른연극마을 ‘사형수 김대중’ 14~15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연출 오성완·극작 양수근…‘DJ 삶과 역사적 고뇌’ 되살려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일대기를 소재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역사 연극이 선보인다.

푸른연극마을의 연극 ‘사형수 김대중’이 오는 14~15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2회 열린다.

이번 공연은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되새기고 관객들과 공감의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작품은 1980년 5월 17일부터 1982년 12월 23일, 미국 망명에 이르기까지 고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역사적 고뇌를 담고 있다.

줄거리는 이렇다. 1980년 5월 17일 자정, 전두환 신군부는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한 뒤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학생·노동자 소요 배후조종 혐의로 김대중을 체포한다. 광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김대중 석방’과 ‘계엄 철폐’, ‘군사독재 타도’를 외치는 합성시위가 울려 퍼지고 외침은 계엄군의 총칼 아래 무

참치 짓발한다.

특히 극중 군사법정에서의 최후 진술 장면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비극적 역사의 반복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성찰하게 하며, 지난해 12·3 계엄령부터 탄핵 정국을 지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오성완 푸른연극마을 대표가 연출과 주연을, 양수근 작가가 극작을 맡았다. 배우 박상규 오일룡 이봉하 김규리 김보겸 민찬욱 김대영 소지원 서대홍 박현호 서해주 임현수 등 13명이 무대에 오른다.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PD는 “제작 과정에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 공연이 지금 광주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마음 하나로 무대에 올리기로 결심했다”면서 “사회가 극단적으로 분열되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혹한 시기에 인동초의 송고한 정신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 오신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관객들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짐에 감사하다. 광주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사형수 김대중’은 지난해 10월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의 초연을 거쳐 올해 3월 경기아트센터 소극장과 4월 안양아트센터 수리홀에서 선보였으며, 광주 공연 후 오는 8월 2일 화성아트홀을 비롯해 수원, 부천, 파주, 부산, 목포 등에서 순회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광주 공연은 12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인터파크와 씨어터연마당 네이버블로그에서 예매할 수 있다.

입장료는 2만원. 문의 062-226-2446.

김다영 기자 alsqsl94@



푸른연극마을의 연극 ‘사형수 김대중’이 오는 14~15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 공연 모습.

동구의 자연 노래…주민들 시 솜씨 발휘

주민 15명 작품 한데모아 시집 출간

광주시 동구 평생학습관에서 시(詩) 공부를 해온 주민들이 동구에 관한 시를 창작한 것을 한데 모아 시집 ‘한평생이 동적골’을 펴냈다.

시집에는 동구평생학습관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시 창작’ 과정에 참여한 동구 주민

15명의 작품이 실렸다.

이들 주민은 올 1월부터 시 창작 공부를 시작해 지역 동구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시 쓰기를 연마해 한권의 시집에 저마다의 솜씨를 발휘했다.

이번 시집에는 2014년 계간 ‘시와사람’ 신인상으로 등단해 시집 ‘동근 초록을 쓰다’와 ‘꽃들에게

길을 묻다’ 등을 펴낸 이경은 시인의 지도로 ‘한평생이 동적골’, ‘산수동 다섯아이’ ‘나의 어머니’ 등 동구 곳곳의 아름다움과 주변인물들의 감사를 나타내려가는 것들의 아쉬움과 동구의 자연을 노래한 작품들이 수록됐다.

한평생 동적골에 머물러는 안동자씨는 동적골의 꽃과 함께 이곳이 자신의 사랑방과도 같은 곳이라는 것을 짧은 시로 표현해 은은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시집은 주민들이 평생 작업을 통해 제작한 것으로 동구평생학습관과 동구도서관 도서관출을 통해 접해볼 수 있다.

송태영 기자



전남 청년 작가들 자발적 기획·전시 펼치다

‘경계 위의 예술가들’전 15일까지 순천문예회관

청년작가들의 목소리가 투영된 전시가 마련된다.

지난 9일 개막, 오는 15일까지 순천문예회관 1·2 전시실에서 열리는 전남 청년작가 단체전시가 그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경계 위의 예술가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전라남도 각기 다른 예술장르를 가진 청년작가들이 모여 이뤄지는 이번 단체전시는 어떠한 지원이 나 후원없이 사비와 재능으로 이뤄지는 자리여서 의미를 더한다. 전시에는 시인,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 웹툰작가, 광고사 대표 등 다양한 지역 창작가 17명이 직접 기획, 제작, 참여한 프로젝트로 이해하면 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2019년 첫 전시에 이어 6년 만에 열리는 두 번째 청년작가 단체전으로, 참여작가 모두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함께 운영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좋아하는 것”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는 각자의 일상과 감정, 취향에서 출발한 작업들이 모여 있다. 참여 작가들은 본업과 창작을 병행하며 드로잉, 사진, 설치, 영상, 글 등 다양한 매체로 각자의



이혜주 작 ‘나의 바라1’

시선과 감정을 표현해 왔다.

이번 전시는 예술 활동을 전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창작에 대한 열정을 꾸준히 이어온 이들의 시간을 조명하며,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고 표현하기 위한 마음과 이를 지켜 온 태도에 초점을 맞췄다. 참여작가로는 김민준 김성규 김시운 김영주 김주는 김선원 박유진 빈정우 신수진 이설민 이승재 이혜주 장성희 장한나 최경균 최창환 홍승용씨 등이다.

최경균 총감독(팀나드디자인 대표)은 “이 전시는 작업을 이어 가고 싶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앞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전시 플랫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와 함께 열리는 연계 팝업스토어는 작가들이 직접 제작한 굿즈를 통해 전시의 감각을 확장하는 공간으로, 연서와 문구, 오브제 등 다양한 물건을 통해 작업의 바깥에서 만들어진 감정과 취향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팝업스토어는 순천 브루워스에서 6월 7일까지 운영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국립현대미술관 보존지원사업 선정

전남도립미술관, 광남배 작 ‘모정’ 보존 길 열려

전남도립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관하는 ‘2024년 공사립미술관 보존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광남배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인 수묵화 ‘모정’의 보존 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보존지원사업 선정은 소장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미술사적 가치 보존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공사립미술관 보존지원사업은 국내 공사립미술관이 소장한 중요 미술품의 보존 처리 및 과학적 분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국가 중요 문화자산을 후대에 온전히 전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2024년 사업에서는 전국 8개 기관이 선정된 가운데 전남도립미술관 역시 이들 기관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며 주요 소장품의 보존 기회를 얻게 됐다.

전남도립미술관은 2023년에도 같은 사업을 통해 이강하 작가의 ‘땀’ 작품 보존을 진행한 바 있으며, 2024년 선정된 보존 작품은 전남도립미술관의 주요 소장품 중 하나인 광남배 작가(1929~2004)의 ‘모정’이다. 광남배 작가는 남종화풍을 계승·발전시키면서도 독자적인 실경산수화를 개척한 작



광남배 작 ‘모정’

가로, 호남 화단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한국화의 전통과 현대적 해석을 조화롭게 구현해냈다. ‘모정’은 국전(대한민국미술대전) 출품작으로, 작가의 깊은 역량과 예술적 정수가 집약된 작품이다. 해당 작품은 전통 남종화 기법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개성적인 필치와 독창적인 공간 구성을 통해 광남배의 예술 세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남종화의 전통을 계승한 작품이 보존됨으로써 지역 미술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전통 회화의 미술사적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